저축 어록

탕진은 단기전
저축은 장기전

SBI 저축은행

희망+

SBI저축은행 웹진형 매거진

Spring 2018 Vol. 17

SBI 포커스

SBI골프단 출범 및 2018~2019 시즌 후원 협약

부서 탐방

SBI저축은행 소호영업부

달콤한 나의 가족

리테일영업3부 이훈 대리 가족의
서울스카이 전망대 나들이

SBI 저축은행

Cover Story

표지모델

SBI저축은행 소호영업부 문찬익 사원

2018년 1월 1일 입사. 설날 방앗간
가래떡처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따끈한 공채 26기 신입사원.
'힙합 보이' 고교 시절을 거쳐,
교육봉사와 홍보대사 활동에 정신없던
대학교 생활을 지나 SBI 둥지에 안착했다.
가래떡처럼 흰 피부 때문이었는지 학창시절
별명은 좀비. SBI에 와서는 '얼짱사원'으로
별명 교체. 그를 처음 본 SBI 동료들,
특히 사보 표지 섭외 담당자는 일찍이
속으로 외친 바 있다. "심봤다!"

08

16

희망+

SBI저축은행 웹진형 매거진

Spring 2018 Vol.17

20

28

04 **이 계절, 이 그림**
봄이 오는 소리

08 **SBI 포커스**
SBI골프단 출범 및 2018~2019 시즌 후원 협약

12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오토금융부 이성희 과장 외 42명

16 **부서 탐방**
소호영업부

20 **우리 동호회 최고!**
SBI저축은행 영화 동호회 '시네마천국'

24 **SBI 희망뉴스**
2018년 1분기 주요 소식

28 **달콤한 나의 가족**
리테일영업3부 이훈 대리 가족의
서울스카이 전망대 나들이

34 **직장생활 솔루션**
Leadership & Followership

38 **추천! 핫 플레이스**
노포(老鋪)의 손맛이 그립구나, 다동에 가고 싶다

40 **SBI 미식회**
SBI 새내기가 노포(老鋪)에 가던 날

44 **이 상품 어때요?**
SBI오토론

46 **컬처 라운지**
2018년 봄 전국 축제 정보

<희망+>는 웹진과 함께 펴내는 SBI저축은행 계간 매거진입니다.
SBI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8-273호(2018. 4. 5, H)

발행일 2018년 4월 5일
발행인 임진구, 정진문
발행처 SBI저축은행 홍보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빌딩 동관 9층
담당 SBI저축은행 홍보부 김원준 주임 Tel. 02-3416-6235
기획·편집·디자인 101디자인스튜디오 Tel. 02-548-5780

<희망+> 웹진
http://sbiwebzine.co.kr

봄이 오는 소리

어디에선가 왈츠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 같다.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들뜨는 까닭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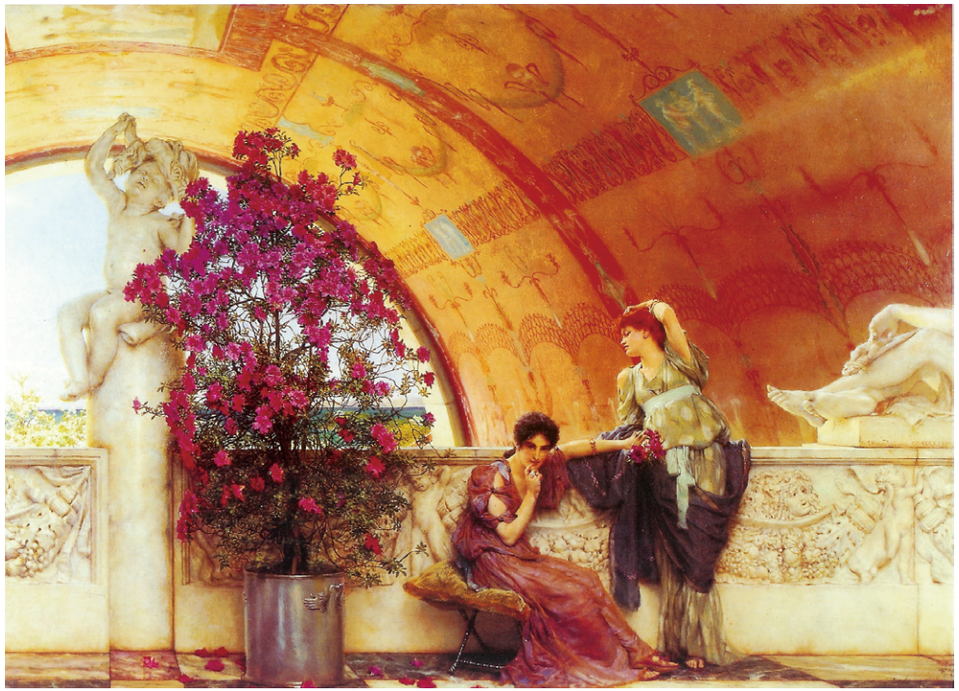
파리 몽마르트르에 있는 '물랭 드 라 갈레트'는 19세기 말 파리지앵들이 사랑한 무도회장으로, 일요일 오후가 되면 젊은 연인들이 모여들어 햇빛을 받으며 춤과 수다를 즐기던 장소였다. 무도회는 오후 3시에 시작되어 자정 무렵 가스등 불빛 아래서 끝이 났다고 한다.

르누아르는 이 작업을 위해 근처 코로가에 아틀리에를 얻고 1년 반 가까이 날마다 드나들며 수많은 스케치와 습작을 만들어 냈다. 120호나 되는 대형 캔버스를 직접 들고 아틀리에에서 무도회장을 오갔다고 한다.

뚜렷한 명암을 쓰지 않고도 사람들 사이에 내려앉은 빛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살려낸 인상파 거장의 솜씨.

봄빛이 찬란한 오늘은 그림 속으로 들어가 왈츠 소리에 몸을 맡기고 싶다.

오귀스트 르누아르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
1876, 캔버스에 유채, 131×175cm, 프랑스 오르세미술관



앨마 태디마 〈**라이벌**〉
1893, 캔버스에 유채, 45.7×63.5cm,
영국 브리스톨미술관

고대 로마에도 때가
되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사랑이 왔다.
그림 속 두 여인이
'라이벌'이라면
아마도 그것은 사랑
때문일 것이다.

봄맞이 철쭉꽃이 한창 피어난 실내, 한풀 기세를 꺾고 들어온 태양 빛이 두 여인을 감싸고 있다. 이 그림의 시대 배경은 고대 로마. 맨 왼쪽에 있는 조각은 사랑의 신 에로스(큐피드)다. 그런데 얼굴에 비극의 가면을 쓰고 있다. 두 여인이 벌이는 사랑 경쟁의 끝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 사랑은 봄처럼 밝고 화사하게 다가오지만 그만큼 짧고 허망하게 사라지기도 한다. 봄이 일찍 저무는 것처럼 꽃도 일찍 자취를 감춘다. 그림 속의 꽃은 그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말하는 듯하다.

러시아에서도 봄은 새로운 희망과 함께 온다.
아직 하얀 눈이 채 사라지지 않았지만 고요한 마을을 깨우는
떼까마귀 소리에서 생명의 기운이 샘솟는다.

그림의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먼 구름 사이로 드러난 푸른 하늘에서 여린 봄기운이 느껴진다. 혹한의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꿈틀꿈틀 하늘로 뻗어 오른 자작나무들은 곧 있으면 찬란한 잎으로 뒤덮일 것이다. 교회 종소리는 더욱 청명하게 들리고, 농가의 일손도 한층 바빠질 것이다. 〈떼까마귀가 돌아오다〉는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봄 그림이다. 동토의 땅에 찾아오는 봄은 그 어느 곳보다 가장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하다.

알렉세이 사브라소프
〈떼까마귀가 돌아오다〉
1871, 캔버스에 유채, 62x48.5cm,
러시아 트레차코프미술관

2018 KLPGA 돌풍, 주인공은 나야 나

SBI골프단 출범 및 2018~2019 시즌 후원 협약

SBI저축은행이 프로골퍼 정연주·김아림·이소미 선수와 2018~2019 두 시즌 동안 후원 계약을 맺고 'SBI골프단'을 정식 출범했다. SBI저축은행은 이번 골프단 출범을 통해 기업 인지도 제고 효과는 물론, 개인금융 부문과 함께 회사 여신 포트폴리오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금융 마케팅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SBI골프단 맏언니 정연주 선수

2011년 KLPGA 신인상 출신이자 2014년 JLPGA 우승 경험이 있는 정연주 선수는 이번이 두 번째 후원 계약이다. 특히 이번 시즌부터는 SBI골프단의 맏언니가 되어 후배 선수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까지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1992년 1월 5일 출생
- 2008, 2009 국가대표
- 2011 KLPGA 신인상
- 2011 상금랭킹 5위(우승 1회)
- 2012 KLPGA 홍보모델
- 2014 JLPGA 참가(우승 1회)
- 2016 MY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2위
- 2017 한국여자오픈 2위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연습장에 갔다가 골프채를 처음 잡았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발레, 태권도, 수영, 리듬체조 골고루 배워봤는데 골프가 저랑 가장 잘 맞았나 봐요.
이번이 두 번째 계약이라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지난겨울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운동하며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약점이던 숏 게임 연습을 특히 많이 했어요. 올 시즌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호쾌한 드라이버 샷
김아림 선수

175센티미터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호쾌한 장타와 공격적인 플레이를 자랑하는 김아림 선수는 올 시즌 처음으로 SBI저축은행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매사 긍정적인 성격에 시원한 웃음으로 SBI골프단에 밝은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다.

- 1995년 10월 4일 출생
- 2015 드림투어 4승(상금순위 2위)
- 2016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9위
- 2016 삼천리 투게더 오픈 8위
- 2017 팬텀 클래식 with YTN 3위

"저는 또래 선수들보다 늦게 골프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골프채를 처음 잡았지만 본격적으로 배운 건 중학교 올라가서였으니까요. 농구, 육상, 수영, 태권도 같은 다른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운동은 했다 하면 '선수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말을 늘 들었는데, 골프만은 달랐어요.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했죠. 승부욕이 강한 것도 그래서인 것 같아요. 새롭게 후원 계약을 맺은 올 시즌은 유난히 더 가슴이 설렙니다. 모자에 새겨진 SBI 로고도 정말 맘에 들어요."

아마추어 무대를 휩쓴 무서운 신예
이소미 선수

고교시절 아마추어 돌풍을 일으키며 '특급 영건' 탄생의 서막을 알린 완도 출신 섬 소녀 이소미 선수. 2016년 한 해에만 7승을 올리며 일찌감치 아마추어 무대를 평정하고, 고3이었던 작년 9월 마침내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다. 후원사 계약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

- 1999년 1월 6일 출생
- 現 국가대표
- 2016 아마추어 시즌 7승
- 2017 NSW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
- 2017 삼천리 투게더 오픈 4위(아마추어 자격)

"초등학교 1학년 때 완도가 고향인 최경주 프로님이 모교를 방문하셨어요. 재능기부로 방과후 수업을 해주셨는데, 그때 처음 접한 골프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때는 축구도 좋아했었는데 어머니가 축구선수는 절대 안 된다고 말리시는 바람에 더더욱 골프를 열심히 하게 되었죠. 이제 갓 프로에 올라와서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갤러리와 호흡하며 경기를 치르는 데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선배님들의 경험을 잘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뉴 페이스 소개받고 가실게요

오토금융부 이성희 과장

저는 SBI저축은행의 '향신료'가 되겠습니다. 좋은 재료를 맛있는 요리로 만드는 건 한 끗의 향신료입니다. 그동안의 제 경험과 SBI저축은행이 함께 어우러져 바로 그런 '한 끗의 차이'를 만들고 싶습니다.

IB3부 고갑진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엔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엔진이 있어야 합니다. SBI저축은행의 성장을 이끄는 IB사업부의 힘찬 동력이 되겠습니다.

종로지점 고하늘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햇살'이 되겠습니다. 고객에게는 다정하고 지점에서는 따뜻한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기업금융2부 권기종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도장'이 되겠습니다. 업무를 진행하고 확인하는 데 도장이 꼭 필요하듯,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겠습니다.

소호영업부 김나연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반다비'가 되겠습니다. 반다비와 수호랑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되었듯이 저도 소호영업부 그리고 SBI저축은행을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수지점 김보현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SBI저축은행과 함께 쑥쑥 성장하고 싶습니다.

노원지점 김수희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을 밝히는 '맑은 신입'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항상 맑은 웃음을 유지하며 선배님들처럼 능숙하게 고객응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림픽지점 김유진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샴페인'이 되겠습니다. 지점의 분위기가 팡팡 터질 수 있도록 기쁨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략리스크관리부 김종영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도베르만'이 되겠습니다. 도베르만은 경비견, 군용견으로 활약하고 있는 만큼 첫인상은 무서워 보이지만 잘 훈육하면 상냥하고 충성심 넘치는 반전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업여신심사부 김진아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오뚝이'가 되겠습니다. 신입이라 배울 점도 많고 실수하는 일도 생기겠지만 거기서 주춤하지 않고 다시 우뚝 올라와 꾸준히 성장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총무부 노영진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진주'가 되겠습니다. 조개가 진주를 품고 있듯이 SBI저축은행이 저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해서 진주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싶습니다.

홍보부 박가연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보라돌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처럼 개성 있고 사랑받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리테일콜렉션부 방준식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꿈나무'가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SBI저축은행의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사이다영업부 김태림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서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멀리서도 꼼꼼히 들여다보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 동근호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사이다'가 되겠습니다. 사이다처럼 회사에 상쾌함을 불어넣고, 회사의 막힌 부분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청량한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명동지점 박소희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사이다'가 되겠습니다. 고객의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는 사이다 같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리테일영업3부 김태훈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뚝배기'가 되겠습니다. '뚝'심 있게, '배'짱 있게, '기'똥차게 일하겠습니다.

소호영업부 문찬익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수호랑'이 되겠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수호랑처럼 소호영업부의 사랑을 받는 마스코트가 되겠습니다!

인사부 박은성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며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검색하는 스마트폰처럼 직원 여러분 곁에서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앱을 설치하면 점점 똑똑해지는 스마트폰처럼 열심히 배워 나날이 발전해 가겠습니다.

이수지점 배담영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봄'이 되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오는 설레는 계절인 봄처럼 SBI저축은행에서 선배, 동료들과 함께 첫 마음을 잊지 않고 고객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응대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점관리부 서준영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모두의 손에서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CSS부 양지수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단짝친구'가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단짝친구처럼, 저도 앞으로 SBI저축은행과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나누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업금융3부 윤희승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의욕만 앞서는 신입사원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내공을 길러 아무리 어려운 일도 척척 해결하는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IT운영부 이규상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IT운영부의 업무를 빠르게 습득해 부서를 대표하는 에이스가 되고 싶습니다.

오토금융부 서한솔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큰 숫자일지라도 단번에 정확히 계산하는 계산기처럼 정확하고 실수 없는 업무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부 여유진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아침밥'이 되겠습니다. 든든한 하루를 보장하는 아침밥은 현대인의 필수입니다. SBI저축은행의 든든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리테일영업3부 은다연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물'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어디서나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점관리부 송은비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스마일'이 되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인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목동지점 유혜인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존재만으로도 힘을 줄 수 있는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IT개발부 이경태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 안의 '작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나태해지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제 마음속에 하나의 회사를 만들고, 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지점 이소진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콘트라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교향악단이 연주할 때 지휘자는 없어도 되지만 콘트라베이스 없이는 연주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콘트라베이스의 낮은 음이 다른 악기들을 어우러지게 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리테일기획부 이형문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뿌리가 단단해야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회사에도 단단히 뿌리 내리는 신입사원이 많아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단한 뿌리가 되어 SBI의 미래를 그려나가겠습니다.

IT개발부 정새하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슈퍼맨'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슈퍼맨의 모습은 평범하지만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SBI저축은행에서 제가 세운 크고 작은 목표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겠습니다.

CSS부 조수현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한 장소에서 비바람을 견디는 나무처럼 묵묵히 제 역할을 하고, 동료들이 힘들 때 쉼터가 되고 싶습니다.

부동산금융부 홍용진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SBI저축은행이 더욱 성장해 나갈 때마다 그 토대가 되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리테일영업2부 임희연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일처리 잘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처리해서 부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경리부 정운혁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달'이 되겠습니다. 지구에 달이 없다면 갯벌 생태계가 파괴되고 공전궤도가 변해 태양에 가까워지고, 그 결과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저 또한 SBI저축은행에 없어서는 안 될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기업여신심사부 조한준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닭'이 되겠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닭처럼 누구보다 부지런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IB1부 장시현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맏딸'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부서에서 막내지만, 항상 책임감을 마음에 담고 지내며 맏딸처럼 듬직한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기업금융기획부 정지원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파이오니어'가 되겠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흔치 않은 투자금융사업, 우리 SBI의 경쟁자는 저축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커지는 CIB본부의 개척자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기업금융1부 채원미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에서 '최고로 인사를 잘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신입사원의 기본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마주치는 선배님들께 모두 밝게 인사하여 기분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준법감시부 황은혜 사원

저는 SBI저축은행의 '엘사'가 되겠습니다. 평소 엘사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눈의 여왕' 엘사처럼 냉철한 '눈', 즉 꼼꼼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나는 최고가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최고입니다

소호영업부

2014년 5월 스탁론과 주택담보대출 업무를 시작한 이후 불과 2년 만에
제2금융권 시장에서 스탁론과 주택담보대출 모두 시장점유율, 실적에서 업계 1위를 달성했다.
2018년 현재에도 SBI저축은행에서 단일 부서 대출실적 월 단위 1~2위를 놓치지 않고
달성하고 있는 바로 그들, 소호영업부 식구들을 만나본다.

2018년 1월, 사상 최초 월 실적 500억 달성

홍성민 부장을 비롯해 총 16명으로 구성된 소호영업부의 주력 업무는 '모기지론'이다. 모기지론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현재 소호영업부에서는 '희망아파트담보대출'이란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올해 1월 처음으로 월 실적 500억원을 달성했고,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고 신DTI 등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부서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이후로도 다양한 정부 규제책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겠지만 그때마다 지금과 같이 정확한 시장파악과 환경 분석, 리스크 관리로 업계 1위 자리를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홍성민 부장)

업계 1위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

소호영업부는 2018년을 맞이해 박병은 과장이 이끄는 영업1팀과 오정탁 과장이 이끄는 영업2팀으로 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다양한 모기지 업체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변화였다.

"소호영업부의 자랑은 무엇보다도 즐거운 부서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직급과 연령층이 모여 있음에도 분위기가 자유로운 편이라 업무상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박병은 과장)

"최근에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신용정보조회 화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 1위라는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죠. 이제 목표는 월 실적 600억과 자산규모 1조원 달성입니다." (오정탁 과장)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열정 그리고 웃음이 모여 '업계 1위' 타이틀을 일궈낸 소호영업부. '나는 최고가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최고'라는 자부심과 팀워크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Talk! Talk!

소호영업부 릴레이 토크 "부서 식구를 소개합니다!"

홍성민 부장님은
소호영업부의 '김태호 PD'. 언제
나 스마트한 감각과 신선함으로
부서를 잘 이끌어주십니다.
- from 오정탁 과장

김지훈 대리님은
소호영업부의 '건달'(건배사의 달인).
항상 센스 있는 건배사로 부서
분위기 UP!
- from 이경민 대리

김태일 대리님은
소호영업부의 '카라멜마끼아또'.
소호영업부만의 달달한
행복 전도사!
- from 김경민 주임

김경민 주임님은
소호영업부의 '밀크초콜릿'.
경민 주임님 덕분에 늘 즐거운
유머로 하루를 시작!
- from 박정혜 주임

1팀

박병은 과장님은
소호영업부의 '핫식스'. 부서원들
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니까!
- from 권혁준 과장

김나연 사원은
소호영업부의 '봄'.
2018년 3월에 입사한
파릇파릇한 뉴 페이스!
-from 홍성민 부장

정희진 사원은
소호영업부의 '햇살'. 가장
먼저 출근하고 밝은 모습으로
팀 분위기를 밝게 만든다.
- from 문찬익 사원

김민영 사원은
소호영업부의 '박카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힘을 주시기 때문!
- from 정희진 사원

김성균 사원은
소호영업부의 '식물요정'. 꼼꼼하
고 확실한 성격, 탁월한 업무능력
은 물론 유일하게 난을 죽이지
않은 소호의 식물요정!
- from 김민영 사원

이성용 주임님은
소호영업부의 '에이스'.
세상에 이렇게 신속한 일처리가!
- from 김성균 사원

문찬익 사원은
소호영업부의 '간판'.
훈훈한 외모와 성격을 바탕으로
이번 사보의 표지모델까지!
- from 김나연 사원

2팀

오정탁 과장님은
소호영업부의 '츤데레'. 은근히
직원들을 잘 챙기기 때문!
- from 박병은 과장

박주희 대리님은
소호영업부의 '맏언니'. 오랜
경력과 맏언니다운 책임감으로
부서의 큰 살림을 척척!
- from 김지훈 대리

권혁준 과장님은
소호영업부의 '레간자'.
소리 없이 강하다!
- from 박주희 대리

접속! SBI 무비 월드

SBI저축은행 영화 동호회 '시네마천국'

언제부터인가 '영화를 봤다'라는 말은 '영화관을 다녀왔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게 됐다.
굳이 극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카페에서,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언제 어디서든
영화를 볼 수 있는 세상. 그러나 어느 누군가와 같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여전히 그것만의 특별한 맛과 느낌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별다른 준비 없이도, 누구나 부담 없이!

이름 그대로 '영화의 천국'을 찾는 사람들, 영화를 보는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에 온 기분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자며 모인 이들이 있다. 2016년 12월부터 정기적으로 모여 영화를 감상하고 뒤풀이 자리를 통해 친목을 나누는 SBI저축은행 영화 동호회 '시네마천국' 회원들이 바로 그 주인공. 동호회 회장인 IB사업부 박응조 이사를 비롯한 23명의 임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모여 차곡차곡 관람 필모그래피를 쌓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날'을 정기 모임 날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이 바쁘거나 개인사정이 겹칠 때를 빼놓고는 모임 날짜를 지키려 애쓰고 있죠. 영화를 보고 나서는 간단한 저녁식사나 치맥도 같이 하며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눕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도 누구나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총무, IB3부 염인식 주임)

IPTV나 스마트폰으로도 영화를 볼 수 있는 세상. 그러나 어느 누군가와 같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여전히 그것만의 '특별한 느낌'이 있다.

영화의 재미보다 큰 함께하는 재미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영화를 보려면 당연히 극장에 갔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IPTV 보급과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혼자' 영화를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객 수 천만을 넘는 영화가 옛날보다 더 자주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영화를 보고, 추억을 만들고 있다.

"TV 드라마나 연극에서 구현하기 힘든 상상이나 표현을 두세 시간의 짧은 시간 안에 스크린에 담아내고, 그 이야기 속에서 감독이 전하는 메시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영화를 보는 참맛이 아닌가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먹는 팝콘과 콜라는 세상 그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이기도 하죠. 좋은 사람과 함께 본 영화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더욱 뚜렷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회장, IB사업부 박응조 이사)

"개인 회비 1만원에 회사 지원금을 더하다 보니 대개는 돈이 남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기보다는 동호회 취지를 살려 추첨을 통해 영화 관람권으로 배분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이 더 많아져 활성화된다면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 우리 회원들만을 위한 진정한 'SBI 시네마천국'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총무, IB3부 염인식 주임)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극장'이라는 은밀하고도 특별한 공간을 빼놓은 채로 영화를 생각하기는 힘들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안에는 일상에 지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작은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동호회 모임 일지>

날짜	관람 영화
2016. 12. 12	판도라
2017. 2. 22	재심
2017. 4. 13	분노의 질주 – 더 익스트림
2017. 5. 31	캐리비안 해적 – 죽은 자는 말이 없다
2017. 6. 30	박열
2017. 9. 27	킹스맨 – 골든 서클
2018. 3. 27	퍼시픽 림 – 업라이징

<'시네마천국' 가입 문의>

IB3부 염인식 주임

전화 02-3416-4084 | **이메일** Yeom0203@sbisb.co.kr

종로지점 홍명진 주임,
1억원 규모 보이스피싱 막아 종로경찰서장 표창 수상

SBI저축은행 종로지점 홍명진 주임이 지난 1월 11일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자 표창 수여식에서 종로경찰서장 표창장을 받았다. 홍 주임은 지난 4일 종로지점을 방문한 고객이 고액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인출 지연, 고객 설득 및 신고를 통해 고객 자산을 지키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워 표창장을 받았다. 홍 주임은 현재 청담지점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중이다.

SBI저축은행은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전사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국내 및 해외 금융사고 발생 시 실시간 공유 등을 통해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SBI저축은행은 전사 차원의 금융사고 예방 교육 및 사례 전파를 통해 지난해 서울, 인천 등 전국 각 지점에서 수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1등 저축은행으로서 고객들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신뢰받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BI저축은행 전주지점
2017 연간 최우수 지점 수상

SBI저축은행 전주지점이 2017년 연간 최우수 지점으로 선정되어 포상금과 트로피, 깃발을 수상했다. 최우수 지점 포상은 항목별 포상금 지급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 포상제도를 종합성과 우수 지점에 대한 명예적 측면을 강화해 새롭게 보완한 제도로, 매월 정량평가 1~3위 지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연말 종합평가(정량평가 + 정성평가)를 통해 최우수 지점을 선발한다.

최우수 지점으로 선정된 전주지점은 2016년 9월 전주의 중심지 완산구 팔달로 한옥마을 인근으로 이전한 이후 영업력을 대폭 강화해 왔다. 전라북도청, 전주시청, 한옥마을, 대규모 주거단지, 대형마트 등 행정, 상업, 문화 시설이 인접해 유동인구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접근성 또한 뛰어난 입지조건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국 최우수 지점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전주지점 신동주 지점장은 “이번 최우수 지점 수상을 계기로 지역 일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8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산업대상 저축은행중앙회장상 수상

SBI저축은행이 '2018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산업대상'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상을 수상했다.

지난 1월 30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데일리 금융산업대상'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시상식으로, 금융산업 발전 기여도와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 등을 기준으로 각 금융사의 히트상품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장상'을 수상한 SBI저축은행은 히트상품 '사이다'를 통해 금융당국의 주요 과제인 중금리 시장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면 바로 대부업 금리에 가까운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리 단층' 현상을 해소하며 중금리 시장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바람직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저축은행 업계의 이미지 개선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SBI저축은행 오토론 '2018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수상

SBI저축은행의 <SBI오토론>이 지난 2월 13일 '2018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오토론 부문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이 국내 브랜드 가운데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브랜드를 시상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SBI오토론>은 상용차·건설기계 구입 및 차량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2015년 7월 출시됐다. 특히 낮은 금리, 긴 상환기간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상품 특징으로 오토론 분야를 선도하고 서민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저 5.9% 금리에 평균금리 8%대 저금리와 최대 84개월 분할 상환을 통해 월 불입금 부담을 최소화해 고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그동안 누적대출 34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 자세한 상품 내용은 44~45쪽 오토론 소개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채 26기 대졸 신입사원 사령장 수여식

SBI저축은행이 공채 26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마무리하고 지난 3월 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사령장 수여식을 실시했다.

임진구 사장은 작년 12월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통해 최종 선발된 25명의 신입사원에게 사령장을 수여하고 "업계 1위 저축은행(2017년 12월 경영공시 자산규모 기준)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며 "SBI저축은행 조직원으로서 마음속에 자부심을 품고 밝은 내일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자"고 신입사원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번 채용 과정을 진행한 SBI저축은행 인사팀 담당자는 "지속적인 청년실업 문제 속에서 업계 지원자들의 경쟁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어렵게 취업 관문을 통과한 이들이 각 부서에서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BI저축은행 골프선수단 정식 출범

SBI저축은행이 프로골퍼 정연주·김아림·이소미 선수와 2018~2019년 2시즌 동안 후원 계약을 맺고 'SBI골프단'을 정식 출범했다.

2011년 KLPGA 신인상 출신이자 2014년 JLPGA 우승 경험이 있는 정연주 선수는 이번 재계약을 통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네 시즌 동안 SBI저축은행의 대표선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번 시즌부터는 'SBI골프단'의 맏언니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상위 수준의 드라이버 비거리를 바탕으로 국내 탑 클래스로 성장하고 있는 김아림 선수와 전국 아마추어 대회를 휩쓸고 현재 골프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 중인 이소미 선수가 합류함으로써 2018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정식 골프단 출범 후 첫 시즌을 맞는 만큼 세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가장 높은 서울에서 느낀 가장 포근한 사랑

리테일영업3부 이훈 대리 가족의 서울스카이 전망대 나들이

한강변 개나리가 막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가 한창이던 3월의 어느 주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 롯데월드타워 앞에 세 식구가 나타났다. 모처럼 주말
나들이에 한껏 여유가 넘치는 아빠, 왠지 조금은 긴장한 듯한 엄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저 설레고 재미있어 보이는 여섯 살 소녀. 리테일영업3부 이훈 대리 가족이다.
세계 5위, 국내 최고 높이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가
이들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117층보다 높은 사랑의 탑

지하 1층 매표소. 바깥 입구에서 봤을 땐 다 올려다보기도 힘들었을 만큼 높은 꼭대기에 실제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세식구 모두 사뭇 긴장된 눈치다. 여섯 살 딸 도경이를 꼭 안은 아빠는 차근차근 주변을 설명하며 가족들을 '안심'시키려 한다. 공항에서나 봤던 검색보안대를 통과해 서울의 역사와 자연환경, 타워 건축과정이 소개된 미디어 월을 지나자 마침내 엘리베이터가 보인다. 117층 높이까지 불과 1분에 주파하는 '스카이셔틀'이다.

"잠시 귀가 멍멍해지는가 싶더니 '어?' 하는 사이에 다 올라왔네요. 서울 남산보다 두 배나 높은 곳을 1분 만에 올라왔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2010년 6월 생애 첫 직장으로 SBI저축은행을 선택한 이훈 대리는 두 차례 짧은 지점 발령을 제외하면 줄곧 본사 리테일영업부에서 근무해 왔다. 그러는 사이 지금의 아내인 표선아 씨를 만나 백년가약을 맺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딸 도경이도 생겼다. 오늘 도착한 117층보다 더 높은 사랑의 탑을 마음속에 지은 세월이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선릉역 보관함에 가보라고 아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번호를 찾아 보관함을
열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손수 준비한 도시락이 들어 있었거든요.

심혈을 기울인 프러포즈 이벤트, 결과는?

회사 생활 3년차, 이훈 대리는 소개팅 자리에서 아내 표선아 씨를 만났다. 무슨 재주가 있었는지 만난 지 1년도 안 돼 결혼에 골인했다.

"친한 선배가 이사를 해서 집들이에 가기로 했는데, 당시 사귀던 아내에게 인사도 드릴 겸 같이 가자고 했어요. 사실은 프러포즈를 위해 제가 예약해둔 곳이었죠. 최대한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가는 도중 이벤트 업체 사장님이랑 전화통화도 했어요. 마치 선배에게 하는 것처럼요. 지금 가고 있는데 20분쯤 걸릴 것 같다고 했더니 사장님은 '어, 그래 천천히 와. 괜찮아 임마'라고 시키지도 않은 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고 이벤트에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자들의 직감이란! 멋진 한강 뷰에 조명까지 더한 곳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노래도 부르고 편지도 읽어줬는데, 요즘은 아내가 저를 놀리고 싶으면 그때 불러준 노래를 틀어요. 지금도 가끔 이불킥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도시락'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준 아내의 속마음이 궁금했다. 이훈 대리에게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

"저는 남편의 유머러스한 외모가 좋았어요. 처음 봤을 때 한눈에 반할 만큼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볼수록 자상한 진국 같은 사람이더군요. 재미도 있어서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았답니다. 하하."

아내 표선아 씨의 유머러스(?)한 답변에 또 한 번 이불킥을 했을지도 모를 이훈 대리. 잠깐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뜬금없이 '도시락' 얘기를 꺼낸다.

"제가 아내에게 반한 건 도시락 때문이었어요. 첫눈에 반하기도 했지만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까닭이 바로 도시락이었죠.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선릉역 보관함에 가보라고 아내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번호를 찾아 보관함을 열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손수 준비한 도시락이 들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감동이 생생하네요."

어느덧 세 식구는 떨리는 얼굴로 바닥 전체가 통유리인 118층 '스카이데크' 위에 올라섰다. 발 아래 차와 사람이 점처럼 보이는 무시무시한 높이. 제곱미터당 1톤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리 곱씹어도 쿵쾅거리는 가슴은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 곧이어 120층에 올라서는 야외에서 바람을 쐴 수 있는 '스카이테라스'로 나갔다. 때마침 곱게 물든 저녁놀이 세 식구의 얼굴에 은은히 스며들고 있었다.

"지친 회사 생활에 이런 소소한 이벤트를 통해 잠시나마 재충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아빠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좋았어요. 미세먼지 탓에 전망을 선명하게 다 못 본 점은 아쉽지만 저희 식구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보다 더 높은 마천루가 있다고?

마천루(skyscraper)는 통상 높이 150m,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말한다. 'skyscraper'는 하늘을 긁어댈 만큼 높다는 뜻인데, 한자어 '마천루'는 하늘(天)에 닿을(摩) 만큼 높은 누각(樓閣)이라는 뜻이니 'skyscraper'와 의미가 같은 셈이다. 세계 5위 롯데월드타워보다 높은 마천루는 어디에 있을까?

1. 부르즈 할리파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829.84m

현존하는 건물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 건물 높이는 무려 829.84m, 163층이다. 우리나라에는 건설 당시 일컫던 이름인 '버즈 두바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2011년 개봉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고스트 프로토콜>에서 톰 크루즈가 이 건물의 유리창을 기어오르는 장면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2. 상하이 타워 | 중국 상하이

632m

중국의 자존심과도 같은 건물이다. 높이는 632m, 지상 128층. 건물 외관은 중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답게 하늘로 승천하는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 상하이 타워는 건물 높이로는 세계 2위지만, 전망대 높이는 561m로 부르즈 할리파의 148층 전망대(555m)보다 높다.

3. 클락 로얄 타워 |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601m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최고층 시계탑이다. 높이는 601m, 지상 120층.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지시에 따라 메카에 이슬람 성지 순례를 온 사람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사우디 정부 소유의 건물이다. 사우디 왕족의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비무슬림인의 방문은 불가능하다.

4. 핑안 국제금융센터 | 중국 선전

600m

핑안 국제금융센터의 층고는 지상 115층으로 롯데월드타워(123층)보다 낮지만 약 50m 규모의 지붕과 첨탑, 안테나 덕분에 600m에 이르는 높이를 갖추게 됐다. 당초 이 빌딩은 660m로 세계 두 번째 마천루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항공기 항로 문제 등으로 첨탑 60m를 줄이며 4위로 내려앉았다.

Leadership & Followership

하나의 팀이 목표를 이루려면 조직을 이끄는 사람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것은 분명하다.
목표를 잡고 그 목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팀의 방향키를 잡는 사람이 리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나 리더십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리더를 따르는 팔로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팔로어십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더 이상 조직을 리드(Lead)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팔로어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나갈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빛의 속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리더십도 유행 따라

리더십이란 무리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말한다. 리더십은 명칭도 다양하다. 리더가 으쌰으쌰 하면서 조직원을 고무시켜 변화를 이끄는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부터 다른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하인이 결국 모두를 이끄는 리더가 된다는 '섬기는(servant) 리더십', 직원들의 생각에 관심을 쏟는 '감성(primal) 리더십', 요즘 자주 회자되는 소통 리더십까지, 마치 패션처럼 유행의 흐름이 있었다.

얼마 전 종영한 〈무한도전〉의 유재석은 좋은 리더의 예로 칭송받는 인물이다. 유재석은 보통 배려형 진행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무한도전〉의 유재석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자신이 앞장설 필요가 없을 때는 뒤로 물러나 멤버들을 뒷받침해주는 조력형이 되었다가, 필요할 때는 전면으로 나서서 '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하지만 시청자 어느 누구도 유재석을 '독재자'라고 일컫지 않는 까닭은 그의 솔선수범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훌륭한 '팔로어'인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리더십이냐 팔로어십이냐

조직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는 리더십(Leadership)일까, 아니면 팔로어십(Followership)일까? 일찍이 장자크 루소는 '이끄는 법을 배우려면 먼저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애당초 우리는 모두 팔로어였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따랐고, 커서는 조직의 리더를 따랐다. 그렇게 성장한 팔로어들은 또 다시 성장해 조직의 리더로 활약하게 된다. 성공한 리더가 되려면 당연히 팔로어십부터 배워야 한다.

리더가 이끄는 사람이라면 팔로어는 밀어주고 끌어당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조직 속의 팔로어는 상사에겐 팔로어지만 부하직원에게는 다시 리더가 된다. 그와 동시에 팔로어는 동료인 펠로우(Fellow)들과 조직의 가치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팔로어십은 리더십과 펠로우십(Fellowship)을 포괄하는 총괄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리더십의 종말?

과거에는 리더가 조직을 움직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팔로어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팔로어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팔로어의 힘으로 국가의 최고 권력을 교체하지 않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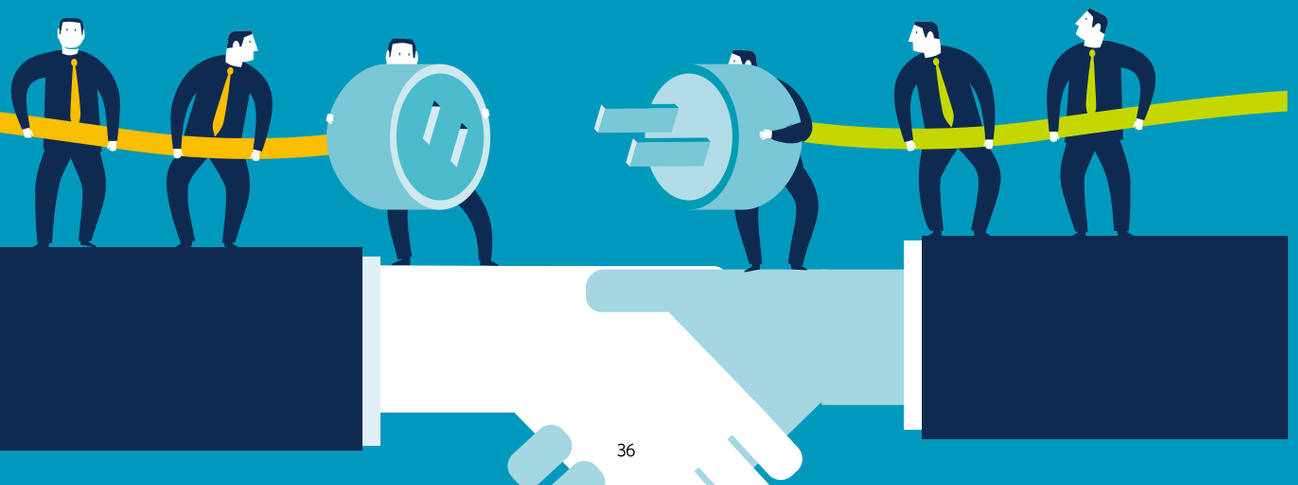
여기엔 인터넷의 힘이 컸다. 과거에는 정보가 엘리트 계층의 특권이었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게 된 것이다. 기업 내 조직도 좀 더 수평적으로 바뀌고 있고, CEO와 중역들은 늘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비자단체, 환경단체와 같은 NGO, 트위터를 통한 투표 독려, 네티즌 수사대, 위키리크스 등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주도한 것은 리더가 아닌 팔로어였다.

이제 팔로어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는 리더는 힘을 잃는다. 독선적 리더십은 더 이상 안 먹힌다. 몇 해 전 바버라 켈러먼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가 〈리더십의 종말〉(The End of Leadership)이라는 책을 펴낸 것도 이 때문이다. 스스로를 '리더십으로 먹고사는 사람'이라고 칭한 켈러먼 교수가 왜 리더십의 종말을 외쳤을까.

리더십과 팔로어의 균형이 중요

리더십의 대가이지만 '리더십의 종말'을 선언한 켈러먼 교수는 "리더십의 종말은 리더의 소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리더십만으로 리더가 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리더십과 팔로어의 균형은 21세기 리더의 핵심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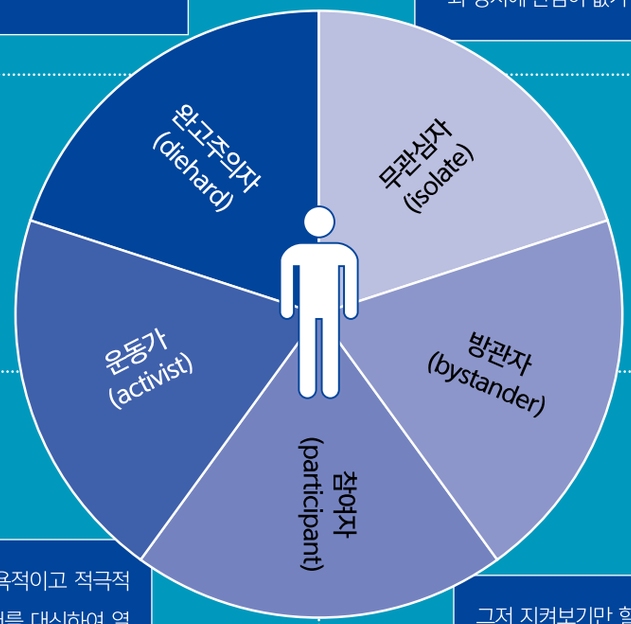
켈러먼 교수는 팔로어십이 리더십을 압도할 만큼 강해질 것이며, 그 까닭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기존에는 리더들만 가지고 있던 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됐다. 리더와 팔로어 간의 정보 격차가 없어지는 현상을 뜻하는 '정보의 대칭성'은 팔로어십을 강화시킬 것이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전이다.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은 팔로어들을 더 강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의 몰락은 페이스북 혁명에서 비롯됐다. 마지막으로 행동주의(Activism)의 보편화다.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스스로 그 행동에 동참하게 된다. 인터넷과 같은 수단은 이런 행동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제 세상은 '팔로어 전성시대'이다.



당신은 어떤 팔로어입니까?

목적을 위해 죽을 각오로 뛰어드는 팔로어로, 2차 세계대전 때 폭탄이 장착된 비행기를 몰고 자살 공격을 한 일본군 가미카제 특공대가 바로 이런 유형.

관심의 동기가 없는 자들로 리더와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스스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예로 들자면 '왜 투표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결론은 특별한 이유와 목적에서가 아니라 선거와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리더와 조직에 대해 매우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로서, 리더를 대신하여 열심히 일하거나, 반대로 그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의 결정은 사실상 중립선언으로, 현상유지를 위해서 누구든 그리고 무엇이든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나치 독일 시대의 독일 민족과 유대인, 방관한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바로 그런 예다.

리더와 조직에 깊이 연계된 사람들로, 시간 등을 투자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한다. 2016년 겨울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이 아주 좋은 예. 참여하는 팔로어는 리더와 조직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

노포(老鋪)의 손맛이 그립구나 다동에 가고 싶다

※ 노포(老鋪):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오래된 점포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뒤편 '다동 먹자골목'엔 세월을 거치며 내공을 다진 노포(老鋪)들이 즐비하다.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늙은 가게'가 될 텐데, 그만큼 오랜 세월을 거치며 남들이 흉내 낼 수 없는 고유의 빛깔을 지켜왔다는 뜻일 것이다. 조금 허름해 보이지만 운치 있는 분위기,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맛깔스러운 음식이 있는 다동으로 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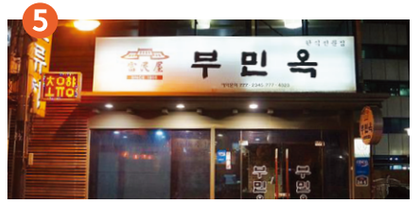
1

남포면옥

45년 역사의 평양냉면, 어복쟁반 전문 식당

Ⓐ 서울 중구 을지로3길 24 Ⓣ 02-777-313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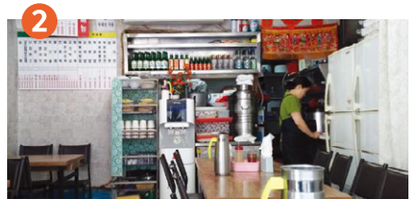


부민옥

62년 내공의 육개장, 양곰탕 국물

Ⓐ 서울 중구 다동길 24-12 Ⓣ 02-777-2345

2



원흥

점심시간 대기인원 1위, 짬뽕의 정석

Ⓐ 서울 중구 다동길 46 Ⓣ 02-3789-3624

6

용금옥

Since 1932, 추어탕에 담긴 역사

Ⓐ 서울 중구 다동길 24-2 Ⓣ 02-777-1689

3

철철복집

생선계의 팜므파탈 복어 맛집

Ⓐ 서울 중구 을지로3길 29 Ⓣ 02-776-2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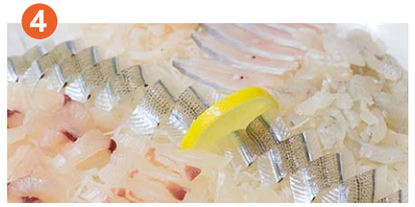
7

미소면가

왠지 면이 당기는 날, 소고기국수 한 그릇

Ⓐ 서울 중구 다동길 21 Ⓣ 02-778-7787

4



충무집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통영 바다의 향기

Ⓐ 서울 중구 남대문로9길 24 Ⓣ 02-776-4088

8

무교동북어국집

북어국 단일 메뉴로 일대를 평정한 맛집

Ⓐ 서울 중구 을지로1길 38 Ⓣ 02-777-3891

SBI 새내기가 노포(老鋪)에 가던 날

봄 도다리, 여름 민어, 가을 전어, 겨울 방어. 해산물을 좋아하는 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게 만드는 제철 생선들이다. 이 가운데 도다리는 봄을 알리는 바다의 전령. 회를 즐기지 않는 사람도 '도다리'쯤은 알고 있을 정도다. 벚꽃은 안 봐도 도다리쑥국은 꼭 먹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왠지 '아재' 느낌일 것만 같은 이 음식에 SBI 새내기 두 사람이 도전장을 던졌다.

멍게비빔밥(위)과
자연산 잡어회

코끝에서부터 찾아오는 통영의 봄맛

충무는 통영의 옛 이름이다. 오늘 미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다동의 '충무집'은 통영 음식을 내놓는 집이다. 통영은 삼도수군통제영에서 비롯된 이름. 통영 출신 소설가 박경리 선생은 소설 〈토지〉에서 통영의 음식을 이렇게 얘기했다.

'해류 관계인지 통영의 해산물은 천하일미를 자랑한다.'

예부터 수산업으로 풍요롭던 통영 사람들은 제사상이나 잔칫상에 갖가지 해산물을 내어 맛깔나게 차렸다고 한다. 통영이 '한국의 나폴리'라고 최근 주목받은 데는 바로 이런 해산물과 그것으로 만든 음식 덕이 컸다.

'통영의 봄맛'은 코끝에서부터 찾아온다. 통영요리 전문점 충무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장 먼저 코에 훅 들어온 건 쑥과 바다 향이었다. 도다리를 맑은 국물에 끓여 쑥을 한가득 얹은 도다리쑥국이 풍기는 향기 때문이었다.

도다리쑥국에 멍게비빔밥 한 숟갈

도다리쑥국은 봄철 통영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다. 특히 남도에서는 봄철 보양식으로 즐겼다. '정월 보름 전에 쑥국을 세 번 먹으면 아랫도리가 무거워 문지방을 못 넘는다'는 식담(食談)이 전해 내려오기도 한다. 〈동의보감〉에도 보양식으로 소개되어 있다.

"쑥 향기가 생선 비린내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먹을수록 감칠맛도 나고요. 도다리 속살은 입에서 살살 녹았어요. 처음 먹어보는데 생각보다 아주 괜찮았어요." (노영진 사원)

"도다리쑥국과 같이 먹은 멍게비빔밥에서도 바다의 향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별다른 양념 없이 비벼서 멍게 고유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죠." (김기완 사원)

생김새가 비슷한 도다리와 광어를 구분할 줄 안다면 사람들에게 '고수' 냄새를 풍길 수 있다. 보통은 '좌광우도'로 구분한다. 물고기를 봤을 때 눈이 왼쪽에 몰려 있으면 광어, 오른쪽에 있으면 도다리. 이것도 헷갈리면 음절로 기억하는 방법도 있다. '왼쪽'이 두 음절이니 광어, '오른쪽'이 세 음절이니 도다리다.

향긋하고 담백한 봄의 진미
도다리쑥국

SBI 미식회 총평

총무부 김기완 사원

평소 멍게를 즐겨 먹진 않지만 비빔밥으로 먹으니 생각보다 향이 좋고 식감도 좋았습니다. 도다리쑥국이랑 회는 소주 한 잔과 같이 하면 정말 좋겠더군요.

총무부 노영진 사원

저는 멸치회무침이 가장 맛있었어요. 도다리쑥국은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아주 괜찮았습니다. 도다리 속살이 입에서 살살 녹았어요.

자연산 잡어회에 멸치회무침까지

광어는 대개 양식이지만 도다리는 대부분 자연산이란 점도 큰 차이다. 도다리도 양식이 가능하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잡히는 양이 비교적 많을뿐더러, 1~2년 키워봐야 잘 크지도 않는다. 인공사료를 잘 먹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갓 스무 살, 입사 3개월차인 노영진 사원의 '어린 입맛'에는 아무래도 향이 짙은 멍게비빔밥보다는 매콤새콤한 멸치회무침이 잘 맞는 모양이다. 자연산 잡어회에도 젓가락이 자주 간다.

"오늘 같이 온 김기완 선배님은 부서에서 저의 멘토이기도 하세요. 얼마 전 고등학교 졸업식 때 직접 오셔서 깜짝 이벤트도 해주셨죠. 오늘 맛있는 음식을 함께한 것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노영진 사원)

"대학생 때 친구들과 남도 여행을 하면서 해남의 해창막걸리, 장흥 삼합에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오늘 다시 맛있는 남도음식 하나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다음엔 친구들과 술안주로 먹고 싶어요." (김기완 사원)

충무집의 또 다른 봄철 대표 별미
멸치회무침

상용차·건설기계 구입자금도 SBI저축은행과 상의하세요!

SBI오토론

2015년 7월 출시한 SBI오토론이 고객의 재무상황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상품으로 서민금융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SBI오토론은 기본적인 선순위 원리금균등 상품 이외에 타 금융사에서 대출이 진행중인 차량에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후순위대출 상품, 원리금 대출에 대해 대출금액 일부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도록 유예하여 월 납입금 부담을 대폭 낮춘 원금일부유예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수고객, 우수품목에 대해 최장 99개월이라는 파격적인 상환 기간을 제공하여 월 부담금을 대폭 낮췄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월 13일 '2018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오토론 부문을 수상하며 서민금융 시장에서 더욱 큰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SBI오토론(상용) 자세히 알아보기

구분	구입자금	운영자금	후순위 대출	원금일부유예
대상고객	건설기계 및 상용차 구입자금 대출 또는 담보대출이 필요한 고객			
금리	9.5%~15.9%		9.9%~22.9%	9.5%~15.9%
연체금리	약정금리 + 최대 12%p 이내			
대출기간	24개월~99개월		24개월~36개월	24개월~99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일부 원리금균등, 일부 만기일시
대출한도	차량 시세금액까지(최대 5억)		2천만원	차량 시세금액까지(최대 5억)
인지세	대출신청금액 5천만원 초과 시 당사와 고객 각각 50%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2% 이내			

월 납입금이 부담스러우세요? 원금일부 유예 상품!

사업상 꼭 차량이 필요하지만 비싼 차량 가격으로 월 납입금이 부담스러운 고객들이 있다. 원금일부유예 상품은 대출금의 최대 30%를 만기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하여 월 불입금 부담을 줄이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 낮아진 월 납입금을 유류비·차량수리비 등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동일한 월 납입금으로 더 좋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어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민고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추가 한도가 필요하세요? 후순위대출 상품!

고가의 상용차량 자금을 대출한 고객이 추가적인 사업자금을 대출할 때 체감하는 금융사의 문턱은 매우 높다. SBI저축은행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타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차량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의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후순위대출 상품을 운영중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체감하는 금융상품의 문턱을 대폭 낮춰 사업자금 회전에 숨통을 트여주는 서민금융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컬처 라운지 + 에디터 이유민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가득! 짧은 봄이 아쉬워라

남녘에서 시작된 봄꽃의 개화 전선이 하루가 다르게 성큼성큼 북상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방해가 될쏘냐. 누가 뭐라 해도 봄은 나들이의 계절. 집에만 틀어박혀 있기엔
이 봄이 너무나 짧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봄 축제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달려가 보자.

제주 유채꽃축제

봄이 오면 제주도 전역을 노랗게 물들이는 유채꽃. 한데 어우러져 피어있는 유채꽃은 보는 이마다 감탄사를 유발할 만큼 장관을 이룬다. 제주의 푸른 바다, 길옆의 돌담 그리고 노란 유채꽃의 세 가지 빛깔이 어우러져 연인에게는 사랑을, 가족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선사한다.

일시 | 4월 7일(토)~15(일)
장소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41

신안튤립축제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신안튤립축제. 올해는 '바다와 모래의 섬 임자도에서 꽃피는 튤립의 대향연'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12km의 규모를 자랑하는 백사장 대광해변과 함께 튤립, 수선화, 히아신스, 무스카리, 아이리스 등 갖가지 꽃을 볼 수 있다.

일시 | 4월 11일(수)~22(일)
장소 | 신안튤립공원

기장멸치축제

봄철을 대표하는 먹을거리인 기장멸치를 널리 알리고 대규모 축제행사를 통한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열리는 축제.
축제 기간 살이 잔뜩 오른 멸치를 맛본 다음, 멸치 털이 체험에 나설 수 있다. 아름다운 주변 해안경관과 관광지 여행은 덤이다.

일시 | 4월 19일(목)~22(일)
장소 |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 일원제주

군포철쭉축제

'책의 도시' 군포에서 열리는 진분홍 꽃잔치. 수리산을 끼고 있는 군포시 철쭉동산 일원에 자산홍과 산철쭉 등 100만 그루 꽃송이가 해마다 봄이 되면 장관을 연출한다. 군포시는 철쭉동산 조성 20주년이 되는 올해 전국 단위 관광축제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일시 | 4월 27일(금)~29(일)
장소 | 철쭉동산, 철쭉공원 등 군포시 일원

여주도자기축제

깨끗한 물, 울창한 소나무, 질 좋은 고령토로 도자기를 생산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여주는 현재 600여 개의 도요에서 국내 전통 및 생활도자기의 60%를 생산하고 있는 도자기의 고장이다. 도자기를 주제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일시 | 5월 5일(토)~22(화)
장소 | 신륵사관광지

진주논개제

천년고도 진주는 예부터 북평양 남진주라 일컬어질 만큼 전통예술이 뛰어난 고장으로 유명하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에서 순국한 논개의 뜻을 기리는 진주논개제는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보기 힘든 진주만의 전통문화와 여성을 테마로 한 축제이다.

일시 | 5월 25일(금)~27(일)
장소 | 진주성 및 남강 일원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에서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1. 서로 다른 곳을 찾아 위쪽 사진에 표시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세요.
2. 6월 15일(금)까지 홍보부 김원준 주임(karlos7979@sbisb.co.kr)에게 답을 보내 주세요.
3. 정답을 보내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